

## 중앙정부

### 환경부, 수도물을 '자연의 물맛화'로 추진



환경부는 지난 10월 2일부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령 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물에서 나는 소독약품(염소) 냄새가 음용하는데 거부감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나, 소독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도물의 유리잔류염소 최소 농도 기준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수도물 중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효과는 높으나 음용하는데 거부감을 주고 있으므로, 소독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도물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을 0.2mg/L 이상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mg/L에서 0.4mg/L) 이상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병원미생물의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송·배수 및 급수설비의 취약한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리잔류염소 0.4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8mg/L)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유리잔류염소의 최소 농도 기준 조정 배경은, 2005년 7월 환경부에서 실시한 수도물 음용실태 관련 전 국민 여론조사 결과, 부적합 사유로 '냄새가 나서'가 26.3%로 나타나, 환경부에서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과제의 하나로 수도물을 '자연의 물맛화' 하기 위해 유리잔류염소의 최소 농도 기준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외국의 경우, 수도물의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1mg/L'(일본, 프랑스) 또는 '흔적'(미국) 등으로 국내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유리잔류염소의 최소 농도 기준 조정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07년 6월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며,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수도물 불신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 4대강 물환경 관리 청사진 제시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대권역 전체의 물환경 개선·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향후 10년간(2006~2015년)의 물환경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이 계획은 하천·호소·연안 수계 등 4대강 대권역 전체의 물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기본방침으로 지방 환경관서 또는 지자체가 수립·시행하는 수질정책의 지침이 되는 물환경 관리 분야의 정부 최상위 계획이다. 특히 종전의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1998~2005년)'은 상수원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춰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위주의 오염물질 관리에 치중한 반면,

이번 계획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국민건강 보호와 수·생태 복원을 위한 정책 비중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상수원 상류 매수토지에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유해물질 평가·관리 강화 및 하천·호소 부영양화 대책 등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하구, 동해안 석호, 실개천 등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부문에 대한 정책 비중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총 32조7,000억원을 조성해 위해성 관리, 수·생태 복원, 비점오염관리 등 신규 수요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 보건복지부, 수도물 불소농도조정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는 수도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인식 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6년 수도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워크숍을 지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무주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구강보건사업지원단, 시·도 보건위생과장, 시·군·구 수도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실시지역의 보건소장 및 정수장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은 '수도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정책방향', '수도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수행 방법' 및 '수도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등의 주제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수도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정책 수립과 치아우식증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도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확대 추진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기관·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 기술 해외진출 본격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최근 잇따라 적도기니와 캄보디아의 기술용역을 수주, 수자원분야 기술력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공은 지난 9월 6일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적도기니 정부와 현지에서 몽고

모(Mongomo) 시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용역계약(계약금액 428만 유로, 원화 약 53억원 상당)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캄보디아의 '수자원개발 종합계획수립' 사업에 대한 계약도 체결했다.

수공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아프리카 3대 산유국 중의 하나인 적도기니 물산업 진출에 성공했으며 적도기니를 포함한 주변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공은 2008년 9월까지 2년간에 캄보디아의 중장기 수자원개발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등을 수립, 선진 수자원관리 기술을 전파하게 된다. 김원실 해외사업처 투자사업팀장은 "이번 계약으로 수자원분야의 상호교류 및 계약 체결국간 경제분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수공은 지속적으로 기술수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관리공단, '장흥군 하수도시설' 민자사업 시행 심의 확정



환경관리공단은 지난 9월 11일, 환경시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06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중 최초로 장흥군 하수도시설 민자사업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과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을 결합·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추정 총 사업비가 837억4천600만원으로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의 4개 하수종말처리시설(6천400톤/일)과 하수관거정비시설(85km)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Request For Proposal)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흥군에서 고시하며, 2007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 오는 2010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가 시설투자비의 대부분을 조달해 건설업무와 20년간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는 이번 사업은 사업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가장 경제적인 비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 탈락자에게도 제안비용을 보상한다. 또 민간사업자가 운영기간 중 적정 운영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성과에 따라 정부부담금을 감액 지급하게 된다.

###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홍수피해 대책 및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지난 9월 25일 매경미디어센터 강당에서 '2006년 홍수피해 원인 및 대책'을 주제로 「2006년 물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수자원·방재·기상·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종합적인 수해 방재대책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신기술 발표·전시회 개최

제3회 환경부 정책설명회 및 신기술발표·전시회가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치범 환경부장관, 홍준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환경기술인들을 격려하고 환경신기술의 적용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민과 관이 한자리에 모여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도입에 따른 설치와 운영방안,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추진방향, 대기 및 악취저감에 대해 4개 분과로 구성, 정책설명회와 신기술 발표·토론회가 이어져 양질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방향과 처리방법을 모색하고 해결하는데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 도 · 특광역시

### 서울특별시, 시민과 함께하는 아리수 페스티벌 열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9월 1일 서울숲 독섬 가족마당에서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의 인지도 확산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제2회 아리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페스티벌은 서

울시의 수돗물 최초 통수일(1908. 9. 1)을 기념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날을 만들고자 지난해에 처음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1, 2부로 나눠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수돗물 블라인드 테스트와 안전성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아리수 체험관이 마련되고, 흰 옷을 입은 아리수 분수인간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선선해진 가을 밤 가족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을 위한 인기가수들의 축하무대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아리수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호감도가 높은 김용만, 김흥국, 고은아 씨를 아리수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앞으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 아리수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

### 대구광역시, 국내 최초로 국제환경상 은상 수상

대구광역시가 호주 아델레이드에서 거행된 국제환경상 시상식에서 금호강 수질개선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은상(Silver Prize)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에는 장정석 수질보전과장이 참석하여 수상과 아울러 금호강 수질개선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환경도시 대구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대구시의 이번 국제환경상 수상이 시민, 지역 환경단체, 기업체 및 정부가 합심하여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긍지를 높이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

# 회원소식



다. 또한 대구시의 국제환경상 수상소식을 접한 주요 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도 문익과 아울러 내년도 국제환경상 도전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죽림강이었던 금호강을 살리기 위해 1조8천억원을 투자하여 6개 하수처리장의 100% 고도처리, 노후 및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 공단폐수 처리시설 보강 및 52km의 임하범 도수로공사로 금호강 유지용수 확보 등 전국 최고의 환경 인프라를 갖추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환경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이며 사전예방적인 수질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환경도시 대구를 이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전광역시, 2006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공공부문 대상 수상



대전광역시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한 '2006년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공공부문'에서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금년도에 대상(大賞)으로 선정되었다.

대전광역시가 금년 5회째를 맞는 녹색경영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얻은 것은 3대 하천 생태복원 추진기반 구축,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 수질개선과 자연형 하천 조성 기틀마련, 자원 순환형 도시시스템 구축 등 환경을 지속

가능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하고 녹색경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환경시책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수상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환경행정 혁신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수준 높은 환경행정서비스를 창출하여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모범도시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광주광역시, 상수도 수질개선 총력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동북호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먹는물 측정분석 숙련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등 수질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부는 동북호의 수질을 1985년 동북호 담수초기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수립, 금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총 569억원을 투입하여 수질개선 목

표를 3.0에서 2.5이하 CODmg/L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준치에 적합한 먹는물 수질기준 유지를 위하여 매월 4개 정수장에 대해 5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를 본부 홈페이지(water.gjcity.net)에 게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누수사고의 신속한 복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누수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옥내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용가의 전액 부담으로 시설, 교체 등을 해 온 것을 앞으로는 옥내 급수시설 세척, 갱생,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과 수질검사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위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기로 했다.

위길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142만의 생명수인 광주의 수돗물이 시민이 함께 아끼고 사랑할 때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 부족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 울산광역시, 용연하수처리장 잉여가스 재활용 사업 큰 성과



민관 윈-윈 사업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용연하수처리장과 SK케미칼(주) 사이 잉여가스 공급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용연하수처리장과 SK케

미칼은 지난 2004년 4월 16일 용연하수처리장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가스(메탄가스) 공급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공급시설 설치 등을 거쳐 2004년 9월 8일부터 본격 가스 공급이 이뤄졌다.

이 결과 2006년 상반기 현재까지 총 378만9,326m³의 잉여가스 공급이 이뤄져 당초 벵크C유를 연료로 사용해 오던 SK케미칼은 벵크C유 200만t을 대체하여 총 2억8,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잉여가스 공급 사업은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윈-윈 사업의 모범사례로 지자체 수익사업 증대는 물론, 연료비 절감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대기환경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 '팔당호'를 2010년까지 1급수로



경기도는 2010년까지 모두 1조5,600여억원을 들여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든다는 내용의 팔당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9월 26일 발표했다.

우선 팔당호 오염의 주범인 경안천(10.8km)을 살리기 위해 모두 733억원을 들여 인공습지와 어도 등을 설치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마을-1회사-1하천운동' 등 경안천 수계 관리 및 감시를 위한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2010년까지 양평, 가평, 광주 등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모두 1조 1,218억원을 투입해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19개를 신설하고 17개도 추가로 증설하기로 했다.

도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할 경우, 현재 61%에 불과한 하수도보급률이 9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경상북도, 하수관거 우·오수 분류사업 대대적 추진



경상북도는 2007년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BTL 사업비 전체 예산 1조3천억원 중 32%에 해당하는 4,1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총 8천14억원을 확보하여 도내 주요 수질 현안 지역에 대한 하수관

거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청의 김동성 수질보전과장은 "지금까지 하수처리사업은 하수관거정비(우·오수 분리)보다 시설확충사업(하수처리장)에 치중하여 왔다"라며 "많은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하수관거 부분에 민간자본의 유치가 없었더라면 하수처리 효율은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 계획기간(2005~2007)동안 도내 수질현안지역에 대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라남도, 섬지역 식수난 해결 5,660억 투입

전라남도는 오는 2013년까지 195개 유인도서의 급수난 해결을 위해 '도서지역 식수난 해결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5,660억원을 투입, 저수지 축조와 관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관내 279개소 유인도서에는 도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20여 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84개 도서에서만 식수난이 해결되고, 나머지 195개의 도서에서는 단기간의 가뭄에도 저수지와 관정이 고갈



돼 3~7일제 제한 급수나 운반급수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도는 우선 매년 격일제 급수와 운반급수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완도군 노화읍과 보길면, 신안군 흑산면 등 14개 도서를 대상으로 저수지 축조와 관정 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국비 재원 확충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 시·군에서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도비에서도 사업비의 일부분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읍·면에 상수도관리 인력 70명 배치

### 제주도, 읍·면에 상수도관리 인력 70명 배치



제주도가 지난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군 폐지로 나타난 주민불편 사항을 없애고, 조직

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행정시 및 읍·면의 인력과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행정조직을 개편했다.

도는 8월 31일 시·군이 폐지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상수도 고장 및 민원 신고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관리 인력을 읍·면에 70명을 배치해 읍·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행정시의 복무 점검 등을 조정하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감사담당을 신설하고 제주도에 문화재관련 전문 인력과 축산폐수 관리 인력을 증원키로 했다.

## 시·군

### 성남시, 수돗물 수질검사 현장 실시



경기도 성남시는 수돗물 민원발생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바로 알려주는 수질검사 기동반을 지난 9월 8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장 수질검사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량은 물론 수돗물 속의 pH, 탁도, 잔류염소, 구리, 철, 아연, 망간함

# 회원소식

유량 등 10개 항목의 검사가 가능한 수질 측정기를 탑재하여 바로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수질검사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질검사기동반을 구성하고 민원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등 다세대 수용가정을 직접 찾아가 직수, 저수조, 물탱크, 가정수도전 등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기로 하는 등 찾아가는 수도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장에서 직접 수도물 검사를 실시·통보함으로써 수도물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하여 맑은 물 공급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부천시, 역곡천 하수처리장 준공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과 서울시 구로구 향동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처리할 역곡천 하수처리장이 마침내 완공됐다.

부천시에 따르면 소사구 옥길동 456 역곡천 주변

1만5천800여 평에 1일 5만톤의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하고 주민 레저공간을 갖춘 남부 수자원 생태공원(일명 역곡천 하수처리장)을 지난 6월 중순에 완공, 9월 20일 준공식을 가졌다.

시는 국·도비와 시비, 서울시 지원금(21억원) 등 총 사업비 899억원을 들여 생태공원을 건설했다. 이번 완공으로 역곡천과 서울 목감천, 안양천 등으로 흘러드는 생활하수를 완전 정화 후 방류하는 등 이들 하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안산시, 하수역류방지장치 무료 설치



경기도 안산시는 지하주택의 장마철 침수방지를 위해 기존 침수가구 및 침수우려 가구를 대상으로 역지변(하수역류방지

장치)을 무료로 설치해 주기로 했다.

하수 역류방지장치란 장마철 집중호우 시 공공하수관에서 지하주택으로 하수가 역류하는 것을 주택 침수정내에 역지변을 설치, 지하가구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이다. 한편 시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사전 설치 신청을 한 건물주 또는 세입자에 한해서 10월부터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 양주시, 신천 하수관리센터 준공

경기도 양주시의 민간투자사업인 신천 하수관리센터가 3년 6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마침내 준공돼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9월 18일 양주시는 임충빈 시장, 정성호 의원, 원대식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천 하수관리센터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총 860억원의 사업

비가 투입된 신천 하수관리센터는 신천의 지천인 홍죽천, 연곡천, 청담천, 회암천, 덕계천에 유입되는 각종 생활오·폐수는 물론 공장폐수 등을 58.9km에 걸쳐 차집, 처리하는 시설로 1일 7만톤을 처리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신천 하수관리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양주시 인구 17만명 중 10만명의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게 됐다"며 "시의 젖줄인 신천을 정화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 도시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 충주시, 하수처리장 직영기업 전환



충청북도 충주시는 하수처리장을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수도 사업구역을 시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하수도 업무 총괄관리자로 물관리사업소장을 지정했으

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오·폐수처리 및 유사 사업은 하수도특별회계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1일 처리능력 1만5,000톤 이상의 시설을 구비하고 공공하수도 사업의 민간기업 경영원리를 도입,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하며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 태안군, 하수처리장 견학코스로 각광



충청남도 태안군은 지역 내 혐오시설로 여겨져 왔던 태안 하수처리장이 교육·견학코스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8월 준공된 태안군 태안을 평천리 상하수도사업소 내 하수종말처

리장은 유치원, 초·중·고교생들의 체험학습장은 물론 주민 휴식공간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10분 분량의 홍보 VTR을 시청하고 하수처리과정을 감시·제어하는 중앙제어실의 운영과정과 실험실 등을 견학하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하수가 깨끗한 물로 변화되는 과정을 관찰한다. 또한 하수처리장 내 5개의 시설물에는 각기 다른 주제로 벽화를 그려 방문객들로 하여금 산뜻한 느낌을 주고, 처리장 주변에는 메리골드, 펜지 등이 흐드러지게 피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처리장에 식재된 100여 그루의 다년생 소나무 및 유실수와 하수처리시설의 친환경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생태연못에 입식한 금붕어 및 잉어 50여 마리도 볼거리가 되고 있다.

### 상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경상북도 상주시는 2008년 12월이면 상주시내 동과 읍·면소재지 등 도시지역 주택에 정화조가 사라지면서 관리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오수관거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그동안 오수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 왔던 정화조

가 사라지면서 관리비가 적어져 가계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특히 오수와 하수관거가 지하 깊이 매설되면서 악취와 해충이 사라지고 오염총량제 등으로 인해 도심에 가로질러 흐르는 북천·병성천과 인근 낙동강 등 하천의 수질도 좋아져 청정도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상주시는 2008년 준공목표로 1천430억원을 들여 동 단위 지역과 함창읍 시가지 총연장 222km에 대해 오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1차로 800억원으로 착공했다.

박상철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관거사업으로 지역제품 판매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만만찮다"라며 "공사가 끝나면 상수가 전국 제일의 청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창원시, 강변여과수 수돗물 공급 개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강변여과수'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었다. 창원시는 2000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등 800여 억 원으로 착수한 1단계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이 완료돼 최근 시

운전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월 30일부터 대산정수장에서 통수식을 갖고 사파·가음정·성주동 등 시내 일부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된다.

시는 낙동강변 지하 40m에 취수정을 설치, 모래층에서 걸러진 1급수를 원수로 취수해 수돗물을 생산하며, 하루 생산량은 6만톤으로 마산 칠서정수장과 이원화원 공급체계를 갖췄다. 시는 올 연말 사업비 700억원으로 하루 6만톤을 생

산할 수 있는 2단계 개발 사업에 착수, 2011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재 동읍과 대신면 지역에 공급되는 2만톤을 포함, 하루 14만톤의 강변여과수 생산시설을 갖춰 시민들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로 생산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된다.

### 마산시, 칠서정수장 수질검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경상남도 마산시 칠서정수장은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정도관리 테스트에서 2006년도 먹는물 분야 숙련도 시험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질검사의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

았다. 정도관리 테스트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수질검사기관의 측정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국가공인 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 이에 따라 마산시 칠서정수장은 이번 평가에서 암모니아질소, 납, 비소 등 11개 전 항목 부문에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진해시, 전국 수질검사기관 분석능력 평가 최우수



경상남도 진해시 상수도관리사업소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올해 수질측정분석시험 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실시된 전국 수질검사기관 분석능력 평가에서 진해시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암모

니아성질소 등을 포함한 11개 항목에 대해 모두 '매우만족'으로 나타나 최우수기관으로서의 수질검사 능력을 인정받는 등 수질검사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진해시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지난 9월 1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자체검사를 포함한 1,580건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최첨단 수질분석장비와 우수한 검사 인력을 확보해 전화 한 통화로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이뤄지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약수터, 샘터, 정수기, 목욕탕, 수영장, 인근 시군 상수원정수 등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분석으로 시민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1억여 원의 세외수입을 올려 상수도 경영행정도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남해군, 상주면 하수처리장 준공

경상남도 남해군이 지역 내 최대 해수욕장인 상주해수욕장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지난 2004년 5월에 착공한 상주면 하수처리장이 2년 3개월여의 공사 끝에 완공했다고 밝혔다.

# 회원소식



남해군은 9월 27일, 상주면 하수처리장 내 광장에서 하영제 군수와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그동안 상주는 여름철만 되면 하루 수만명의 피서객들

과 인근 마을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해 연안과 금양천이 심한 몸살을 앓아 왔다. 이에 군은 2002년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전마을에 하수처리장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공원 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마쳐 지난 2004년 5월 착공에 들어갔다. 총 사업비 109억7천여 만원이 투입된 상주면 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600톤으로, 오수·우수관로가 30km, 오수 중계펌프장과 맨홀펌프장 각 1개소, 전기 및 계측제어 1식을 갖춘 최신 시설의 완벽한 처리장으로 준공됐다.

## 목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전라남도 목포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정부의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목포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청 인근인 목포시 용당동 1203-8(목포시청 야외주차장 옆 평안빌딩)으로 이전을 완료한 후 지난 8월 14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1층에 수도과 190㎡(57평), 3층에는 상하수도행정과 198㎡(60평)와 하수와 287㎡(87평) 등이 각각 위치한다. 특히 상수도과 관련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층에 상수도민원 창구 24㎡(7.2평)와 광주은행 수납창구 24㎡(7.2평)도 추가로 설치되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여 상하수도 민원을 처리할 때는 하수과가 별도로 떨어져 있어 민원을 요청하는 주민들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간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상하수도사업소의 독립된 청사 이전으로 동일건물 내에서 상호연관성 있는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목포시의 주민 만족을 위한 행정혁신 노력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 해남군, 문내면 고질적인 식수난 해결



전라남도 해남군이 문내면 주민들의 고질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해 실시한 '문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완공, 통수를 앞두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04년부터 총사업비 80여 억원을 들여 각 마을까지 배수관로 44km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8월말에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번 사업의 완료로 문내면 지역의 46개 마을 중 기존 급수구역이 16개 마을에서 40개 마을로 확대되었다. 고지대인 6개 마을

에 대해서는 화원면 상수도확충사업으로 급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문내지구 지방상수도는 장흥댐을 수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에서 정수된 물을 직접 수수, 공급함으로써 문내면 주민들이 양질의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업

### (주)젠트로 변무원 대표, 7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선정



젠트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7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변무원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변대표는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거꾸집개발에 몰두하여 한때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폴리에틸렌 원형맨홀거꾸집을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이 회사는 기술개발만이 살길이라는 변대표의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로 매년 30%이상의 매출향상을 이루었고, 정부지정 신기술 3건, 특허권 79건 등 모두 150여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변대표는 지난 2001년 특허청으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으며 제 4대 발명대왕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주)두합크린텍, R&BD Center 및 인천공장 준공식 열어



두합크린텍은 지난 8월 24일 인천시 서구에 R&BD Center 및 인천공장을 신축하여 준공했다고 밝혔다. 인천공장 준공은 지역적으로 서해안 국제업무도시가 건설되는

청라지구에 인접하여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번 준공식과 관련하여 이 회사 관계자는 “실용화 가능한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차세대 환경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창립 기념 장기근속직원 표창 및 포상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로서 사업영역 전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놀랄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도화종합기술공사는 2006년 8월 15일 회사 창립 제 49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시행하였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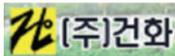
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이 분야 일류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포모나환경기술, 본사 이전**



선진국형 비점 오염원 기술을 바탕으로 초기우수처리 및 월류수(CSO)처리 기술을 국내에 영입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포모나환경기술이 지난 8월 31일자로 회사를 확장·이전하였다. 이전된 사무실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2-21 마진빌 201호다.

**(주)건화엔지니어링, 상호 변경**



건화엔지니어링이 지난 2006년 9월 4일부로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주식회사 건화'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지난 1990년 3월 26일 창립 이래 건설엔지니어링 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건화는 이번 상호변경을 계기로 세계적인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성장의지를 밝혔다.

**(주)케이에프이, 수도계량기 만능검사장비 특허획득**



케이에프이는 지난 2006년 9월에 수도계량기 만능검사장비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와 관련하여 이 회사의 관계자는 "상수도 공급의 확대와 더불어 중·소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현장에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새로운 차원의 장비 개발이 필요하게 되어, 세계 최초로 수도계량기 만능검사 장비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개발배경을 말했다.

**(주)아이에스유코, 수도관 부식 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



아이에스유코는 '수도관 부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법 개정과 갱생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부산(9.12), 대전(9.14), 대구(9.19), 서울(9.20) 등 4개 도시에서 순회 개최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수질관리 강화 및 수도물 불신해소를 목표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옥내급수관의 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시점에, 옥내 급수관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으로 원수의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보급하고 주민건강을 지켜줄 해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삼진정밀, 'WORLD CLASS COMPANY'로 선정**

삼진정밀은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선정한 'WORLD CLASS COMPANY'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이 회사 정태희 사장은 "해외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는 삼진정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 삼진정밀이 가지



는 밸브업계의 위상 제고에도 큰 힘이 되어 명실 공히 한국 밸브업계의 대표주자로서 세계 밸브시장에서 주인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터"라고 선정소감을 말했다.

**향후 행사 안내**

**대한상하수도학회 · 한국물환경학회, 『공동추계학술발표회』 개최**

- 1. 일시 : 2006년 11월 15일(수)~16일(목)
- 2. 장소 : 대구전시컨벤션센터(대구광역시 소재)
- 3. 발표구분 : 구두발표/포스터발표
- ※ 문의처 : 대한상하수도학회 사무국
- ☎ 02-875-1647, FAX 02-6246-1647, www.ksww.or.kr

**대한환경공학회, 『추계학술연구발표회』 개최**

- 1. 일 시 : 2006년 11월 2일(목)~4일(토)
- 2. 장 소 : 강릉대학교(강원도 강릉시 소재)
- ※ 문의처 : 대한환경공학회 사무국
- ☎ 02-383-9653, FAX 02-383-9654, www.kosenv.or.kr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제7회 환경신기술 발표회』 개최**

- 1. 일 시 : 2006년 11월 2일(목)~3일(금)
- 2. 장 소 : 충주호리조트(충청북도 충주 소재)
- ※ 문의처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사무국
- ☎ 02-3800-500, FAX 02-3800-599, 699, www.kiest.org

**“전국 상하수도인이면 누구나 보는 협회지에 회원 여러분의 최근 소식을 담아보세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아래의 협회지 담당자에게 보도자료(사진자료 포함)를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회원님들의 소식을 소중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

기획처 홍보팀 신재택(02-3156-7731)

email jtshin@kwwa.or.kr